

# 한서 로타리클럽, 20년째 이어온 '사랑의 쌀 나눔'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 로타리 클럽(회장 이경노)은 지난 12월 21일 서산 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경구)에서 사랑의 쌀 및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한서 회원 가족과 이경구 센터장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따스하게 겨울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덕담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까지 불어 넣어 주었다.

이외 회원 가족은 서산시 각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거점 관계자들과 수혜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따스하게 겨울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덕담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까지 불어 넣어 주었다.

이외 회원 가족은 서산시 각 읍면동 자원봉사센터 거점 관계자들과 수혜가정을 직접 방문 전달하며, "따스하게 겨울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의 덕담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들에 희망까지 불어 넣어 주었다.

수혜자로 선정됐던 한 어르신은 감사스럽게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돼 그늘을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 로타리클럽은 지난 21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쌀 및 생필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구독자

생활하던 경로당을 방문하자 어르신들은 "쌀은 기관단체 등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으나 이처럼 라면과 화장지 등 생필품은

귀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랑의 쌀 및 생필품을 직접 전달하고 있는 한서회원/사진=구독자

이경노 회장은 "우리 한서 로타리클럽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마다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했다"면서 "올해는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주고, 직접 전달까지 해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 클럽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산한서 로타리클럽은 1999-2000년 회기에 창립 후 2003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사랑의 쌀 나눔은 지하수 봉사, 주방가구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펼친 수혜자를 우선 선정하고, 회원의 추천 및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가정에 나눔을 실행하고 있다.

/김현기 기자

## 충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75세까지' 확대 지원

본인부담금 2만 원 폐지, 1인당 17만 원 전액 지원

충청북도는 지난 8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작된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이 오는 2월 21일까지 이어진다고 16일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72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액 2만 원을 폐지해 바우처 카드 지원액 17만 원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김영환 지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사기 진작과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번 기회에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2,000명이 늘어

난 전체 37,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20세 이상~75세 이하(1950.1.1.~2005.12.31.)으로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합산) 50,000㎡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여성농어업인이다.

행복바우처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1일까지 접수받고, 사용처는 의료·유희·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 전 업종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신청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국 기자

## 서산시 4-H연합회, 시장 간담회 및 연말총회 개최

12월 17일, 제64대 임원진 선출

서산시 4-H연합회(회장 김형래)는 지난 12월 17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간담회 및 연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산시 4-H연합회 측이 이 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전하며, 서산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이후 연말총회에서 2024년 서산시 4-H연합회 활동 및 성과보고 후 제64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64대 서산시 4-H연합회 임원진은 ▲ 회장 김동완 ▲ 부회장 △송정민 △신은주 ▲ 감사 △김성수 △이주영씨가 선임됐다. 김형래 회장은 "올 한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우리 회원들이 농촌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소통과 단결을 통해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



▲ 64대 임원진 선출부터 송정민 신은주 김동완 이주영 김성수

서도 늘 함께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서산시 4-H연합회가 빛날 수 있으며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도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서산시 4-H연합회를 이끌어갈 64대 임원들에게 큰 응원과 기대를 보낸다"고 했다.

한편 서산시 4-H연합회는 ▲ 협업공간 미디어 장비교육(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편집장비, 녹음장비 등) ▲ 충청남도 4-H연합회 회장단 시군순회 서산시 방문 ▲ 서산시 4-H 연합회 1분기 회의 ▲ 현월 캠페인 ▲ 역량강화교육 개최 ▲ 아산 세계 꽃시물원 화재피해봉사활동 ▲ 어버이날 행사

/가우호 기자

▲ 4h현장체험학습 ▲ 4h양성교육 초록나무가족농원 ▲ 수해복구 봉사활동 논산과 청양 ▲ 야영대회 ▲ 경진대회(학교 텃밭 프로젝트성과발표, 자원봉사 성과발표, 60초 영상경진, 크로바 퀴즈경진, 목공예 경진, 가족공예, 도예경진, 드론경진) ▲ 국화축제 봉사, 국화 잎따기 ▲ 학생4-H 과제경진대회 ▲ 공동학습포 수확 ▲ 시상식(김동완 제31회 충청남도 농어촌 발전상, 서산시 4-H연합회 대상, 서일고4-H회 최우수상, 남기원 충남도지사 표창)

▲ 성남보육원 봉사활동 ▲ 4개 시·군 체육대회 ▲ 충남 4-H임원 역량강화 교육 ▲ 공동학습포 관리사진 ▲ 지도교사협의회 ▲ 역량강화교육 ▲ 역량강화워크숍(벤처농업대학 미디어아그로스쿨 유치 농업인과 함께하는 스마트 역량강화 워크숍) ▲ 충남 우수청년농업인 워크숍 ▲ 학생4-H 현장체험학습 ▲ 서산시 4-H연합회 야영대회 ▲ 한국 4-H중앙야영대회 ▲ 청년의날 행사 ▲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실습장 입소식 ▲ 제1회 청년농부 4-H농업페스티벌 ▲ 농업인 한마음대회 ▲ 서산시 4-H연합회 역량강화교육 ▲ 충청남도 4-H대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가우호 기자



▲ 서산시직원이 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는 모습

## 서산시, The Sun Rising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인재 양성'

관내 고등학교 21명,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동부지역 탐방

충남 서산시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어학 캠프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추진되는 어학 캠프는 서산교육지원청, 한서대가 함께 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외국 체험과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원도 영어 스키캠프 등이다.

먼저, 고등학교 외국 체험은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 미국 동부권의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들은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총 21명이며, 재학생의 인내에 따른 대학교 탐방과 구내식당 등을 체험할 예정이다.

또한, 한인 스타트업 창업자와의 만남, 역사 탐방 등도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전망이다. 시는 참여 학생들에게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사전 어학 프로그램을 제공해 빠른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추진되는 영어 스키캠프는 낮에는 스키 연습, 저녁에는 영어 회화 그룹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서대학교 외국인 교수 3명이 진행을 맡았으며, 시는 영어 스키캠프를 통해 놀이와 외국어 학습을 접목, 원어민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영어 회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장은 "서산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을 이끌 글로벌 인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집중 어학 프로그램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정진 기자

##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놀러오세요"

태안군, '2025 태안 방문의 해' 공식선포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에서의 특별한 만남을 기대하며, 2025년을 태안 방문의 해로 선포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 운영을 공식 선포하고 국내 최고 관광휴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14일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충남도 관계자, 군의장 및 도·군의원, 군민 및 관광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태안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025 태안 방문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관광객 맞이 위한 태안의 의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뮤지컬 앙상블의 식전공연에 이어 환영사 및 축사, 태안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식, 주제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이날 가수 이진성(먼데이키즈)·나래주·서영은과 성악가 안갑섭이 '태안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돼 큰 박수를 받았으며, 이어 가세로 군수가 선포문을 낭독하고 현장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선포식 후에는 태안 방문의 해 기념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는 각종 홍보부스(관광, 특산물, 해양치유, 원예치유, 국립공원) 및 체험부스(자개 키링 만들기, 뜨개 목도리 만들기)가 마련돼 군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군은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을 수 있도록



▲ 14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 선포식 모습

태안의 다양한 매력을 각종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둔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해 해수욕장 등 각종 관광자원, 축제 및 스포츠 대회 등을 태안 방문의 해와 연계하고 그에 발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선포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관광브랜드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운영, 홍보 마케팅, 관광인프라 및 수용태세 강화 등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사계절 관광 콘텐츠 발굴과 더불어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의 진면목을 알릴 수 있도록 전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필 기자

## 예산군, 다가가는 서비스로 소외 없는 복지 실현한다

노인복지, 청소년 맞춤형복지, 여성 및 가족 돌봄서비스 강화 등

예산군이 2025년 새해를 맞아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서비스로 소외 없는 복지 실현에 나선다.

군은 경로당 활성화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돌봄기초 강화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청소년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 청소년 자립 강화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 및 여성

인재 양성,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과 교육활동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와 1인가구 안전·가정용품 지원 등을 추진해 여성 및 다양한 가족 구성 변화에 대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산을 지킨 독립운동가 선정, 제복의 영웅 가족사진 촬영 지원,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및 말반찬 지원, 보훈

단체장 회원관리비 지원, 보훈단체 해외 문화 탐방 지원, 보훈가족 및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추진, 충남 월남참전자회 활성화 지원 행사 개최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추진에도 나선다.

나이가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수급권 보호체계를 강화해 맞춤형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 강화,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과 탈수급 유도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등 IT기술을 접목한

/최용관 기자

## 천안시,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실행과제 도출

치의학,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 신산업 육성 목표

천안만의 특화된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가 도출됐다. 천안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도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치의학,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등 미래 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 기반, 연구개발(R&D) 기획 등 사업화 전략부터 임상, 인허가, 판로 개척, 기술 사업화, 국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 이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도출된 20개의

실행과제에 대해 차별성, 실현 가능성, 지역 적합성, 정부정책 부합성 등을 검토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추진 로드맵 등을 확정된 후 오는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를 치의학 산업 육성, 분야별 기반 구축, 국비 사업 추진, 투자유치, R&D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장은 "첨단 의료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은 과학기술 연구개발(R&D)과 결합한 스마트도시 전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천안을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